

#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기치를 안겨주시어

6월은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는 환희와 격동의 달이다.

11년전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북남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북과 남사이에 오랜 기간 닫혔던 문이 열리고 대화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각계층의 수많은 동포들이 북과 남을 오가게 되었다. 평양과 금강산, 서울, 제주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민족통일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고 통일의 합성이 삼천리에 메아리쳐갔다. 분리의 장벽에 파렬구를 내며 풀려졌던 철길과 도로가 이어지고 남조선인민들이 통일이전에 금강산을 관광하는 희소한 사변도 펼쳐졌다.

6.15시대에 이런 놀라운 사변과 성과들이 있었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통일에국의 기치를 겨레에게 안겨주시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다.

들어켜보면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글썽하게 새겨진 우리 민족끼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주체89(2000)년 3월 삼천리의 지맥을 거느리고 우뚝 솟아있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펼칠 통이 큰 구상과 작전을 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4.8북남합의서가 발표되고 6월에는 분별 55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평양상봉의 나날 남측 수뇌분에게 지난 시기 북과 남사이에 이미 합의한 좋은 문건들이 많다고,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는것을 명백히 하시고 이번에 내놓는 문건은 2000년대를 맞이하는 첫해에 우리가 처음으로 상봉하는 것만큼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라관을 주는것으로 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6.15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89(2000)년 6월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번에 새 세계에 들어서면서 지난 시기의 유물을 털어버리고 원칙은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선언적이고 지향적이며 희망적인 문건을 내놓아야 한다고, 그러니 구시대의 유물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대에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적으로 실현한다고 천명하자는것이라고 힘주어 강조 하시였다.

하여 6월 15일 새 세계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고 이 땅에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역사가 만들어졌다.》 《6.15공동선언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민족자주정신이 안아온 통일의 리정표》... 이것은 겨레가 러친 십장의 웨침이고 6.15찬가였다. 뜻깊은 한해가 저물고 다음해인 주체90(2001)년 1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지난해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적합을 이룩하는것이 라고,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말고 다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가르

쳐주시였다. 그의 이 말씀에는 6.15북남공동선언이 밝힌 민족자주와 단합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에 기초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려세움으로써 새 세계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굳은 의지가 비껴

# 6.15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 때로부터 11년이 되어온다. 들어켜보면 반세기이상이나 불신과 대결의 가슴아픈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서 처음으로 북남수뇌분들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글문자로 아로새겨진 경이적인 사변이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새 세계 자주통일의 리정표가 마련되고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지난 시기에 사상초우 할수 없었던 놀라운 전변들이 이룩되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북과 남사이에 상공회담을 비롯한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졌다. 두렵게 얼어붙었던 분리의 장벽에 파렬구를 내며 하늘길, 땅길, 배길을 여는 장쾌한 사변들도 일어났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숭고한 민족애와 통일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변불휴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어버이사령의 조국통일위업을 관철하여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기어이 안겨주시실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회담을 정력적으로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핵

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시어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과 신심을 안겨주시였으며 불패의 선군정치로 외세의 끊임없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고 공동선언리행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6.15공동선언을 리행해오는 나날에 북남관계사상 또 하나의 사변인 력사적인 10.4선언을 마련하시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를 마련 해주시였다. 참으로 온 겨레가 지지하고 받드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이끌어오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으로 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오늘 우리 민족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으로 되고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후 활력있게 전진하던 겨레의 통일운동은 남조선보수당국들의 악랄한 동족대결책동과 전쟁소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집권 초기부터 조국통일의 대강이며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였으며 북남관계를 극도의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아갔다. 헌시그 리명박보수 《정권》의 무모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더이상 수습할수 없는 파국상태에 처하였으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참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지나온 나날들과 오늘의 현실은 6.15의 길만이 민족의 살길이고 평화와 통일번영의 길이라는 력사의 진리를 똑똑히 깨우쳐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모두가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대강이며 지침이다. 북남공동선언을 떠난 북남관계개선에,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오늘의 파국적인 북남관계현실은 바로 남측당국의 6.15부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북남관계를 바른 궤도위에 다시 올려세우고 발전시켜나가자고 해도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해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이며 이것은 민족공동의 통일리념이다.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투철한 자주정신을 가지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의 자주성, 나라의 통일은 민족중심의 리장에 확고히 서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적극 옹호해나갈데 실현될수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며 민족적합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민족의 자주통일지향에 역행하면서 겨레의 머리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

을 몰아오고있는 반통일대국세력의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의 현 《정권》은 동족대결을 《원칙》으로 떠들어대면서 끝까지 민족의 통일지향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는 극악한 동족대결 《정권》이고 반통일집단임이 날날이 림증되였다. 남조선보수당국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전쟁의 참화밖에 초래될것이 없다. 공화국은 이미 남쪽의 대결 《정권》과 더이상 상충하지 않겠다는것을 명백히 천명해왔다. 남조선의 대결세력들에게 차례질것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는 6.15의 기치밑에 일치단결하여 반통일전쟁세력을 단호히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지만 회세의 위인이 계시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빛을 뿌리고있으며 북과 남의 광범한 통일에 국제력이 있어 자주통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이 땅의 통일을 안아오는 주인은 다름아닌 7천만 우리 겨레이며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오는가 하는것은 결국 겨레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뜨거운 민족애, 통일열의를 가지고 거족적인 자주통일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그날 위인의 명필체

잊지 못할 2000년 6월의 그날, 분남의 눈석이처럼 대결과 분리의 차디찬 얼음장이 녹아내리고 통일의 열풍이 백두에서 한나까지 삼천리강토에 차넘치던 그 현실앞에서 우리 겨레는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격정에 설레었던가. 이 땅에 밝아온 6.15통일시대의 아침을 감격과 흥분속에 맞이한 남녘겨레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포모를 직접 목격하고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의 정으로 가슴 불태웠다. 그 나날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

특별매대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필체를 TV를 통하여 보게 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그 필체에 어린 절세의 위인상에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그때부터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시대로 날아가듯 함꼐 필체로 수표하는

특별매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정을 통해 남조선인민들은 수수한 잠바웃차림을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겸허하신 모습을 격정속에 뵈우게 되었다. 가슴속에 차넘치는 그이에 대한 뜨거운 경모심을 금할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로써 위대한 장군님께서 입으시었던것과 같은 잠바웃을 입는 경쟁바람이 일었다. 이렇게 되자 남조선의 백화점들은 그러한 잠바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매대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경모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심정을 반영하는 장군님의 영상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손님들이 그걸에서 사진을 찍을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특별매대는 나오자마자 매일 초만원에 이르렀고 있다.

TV앞에서 떠나지 못한 3일

시위투쟁과 최루탄으로 유명한 남조선에서 시위가 전혀 없었던 때가 있었다. 바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진행된 3일동안 남조선에서는 단 한건의 시위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TV로 방영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뵈오면서 친척위인으로서의 그의 탁월한 인품에 매혹된 사람들은 각종 TV앞을 떠나지 못했다. 그들은 온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쏟아져있었다. 남조선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놓고 시민들이 3일 동안 TV에 《감전》되어있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최석현





# 6.15 공동선언 이행에 민족의 평화와 통일변명이 있다



6.15공동선언발표 7주기년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장 [주제96(2007)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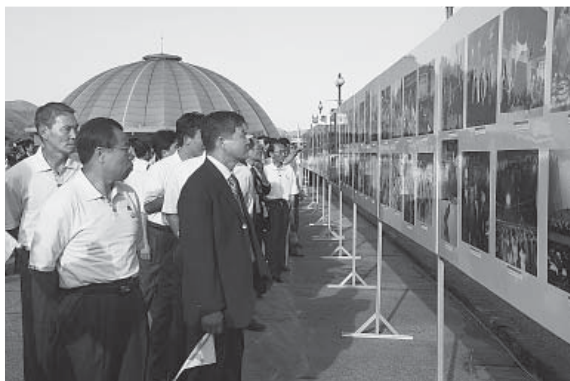
조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 [주제89(2000)년 9월]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2004년 북한로동자 5.1절통일대회



어깨걸고 달리는 북과 남의 농민들 [주제93(2004)년 6월]



↑ 6.15공동선언발표 8주기년 북, 남, 해외공동 사진전시회 진행 [주제97(2008)년 6월]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문화축전 진행 [주제94(2005)년 9월]



→ 북남철도연결 구간 열차시험 운행 진행 [주제 96(2007)년 5월]



금강산을 관광하는 남녘동포들 [주제96(2007)년 10월]



↑ 개성공업지구 건설 착공식 진행 [주제92(2003)년 6월]

← 제22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공동입장하는 북과 남의 선수들 [주제92(2003)년 8월]



최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자!

